

한국민 '성 의식' 집중 분석

■ '성 평등'에 대한 일반 의식

- _ 우리나라 남녀, '평등하다' 37%, '불평등하다' 59%
- _ 우대받는 성, '남성' 67% vs '여성' 33%
- _ 30년 후, '여성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 50%

■ 성별 '자기 인식' 현황

- _ 지금의 성으로 태어난 것, 남성 만족도 소폭 높아
- _ 우리 성 중시 이익, 여성이 더 '자기이익 중시'
- _ 우리 성 대화 방법, 남성과 여성 달라
- _ 대한민국에서 위치, 남성 '주도' vs 여성 '소외'
- _ 삶의 방식, 남성이 조금 더 '열심히 산다' 생각

■ '상대 성에 대한 인식' 현황

- _ 남성, 여성의 삶 '부럽다' 생각
- _ 이익중시, 남성의 여성 보는 인식 차 커
- _ 남녀 모두 상대 성은 '자기 말만 한다' 생각
- _ 여성, 남자들이 대한민국 주도한다고 인식
- _ 남성, 여자들 사는 방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2월 11일(금) ~ 2월 1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5\%$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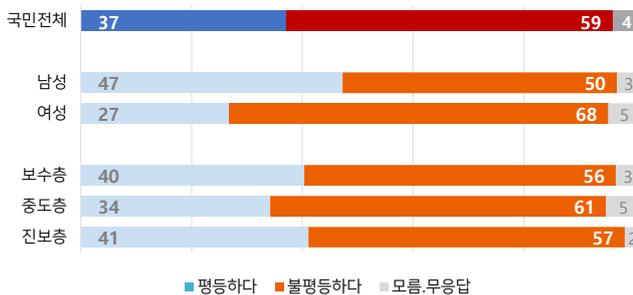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성 평등'에 대한 일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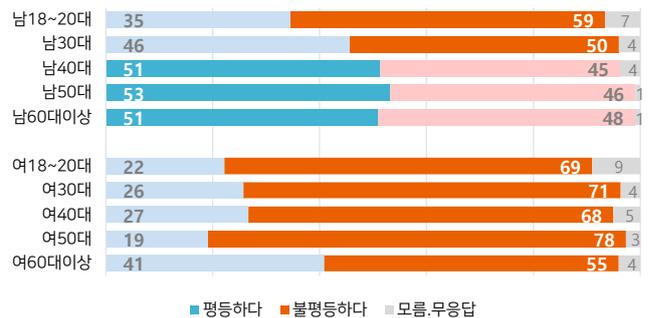
□ 우리나라 남녀, '평등하다' 37%, '불평등하다' 59%

- 우리 국민들은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가 평등하기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결과임
-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59%로, ‘평등하다’는 의견(37%)보다 높게 나타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성 △여자 2050세대 △주부 등임
 -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여자 50대로 78%에 달함
- ‘평등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60세대 등임
 - 이들 계층에서도 의견 차이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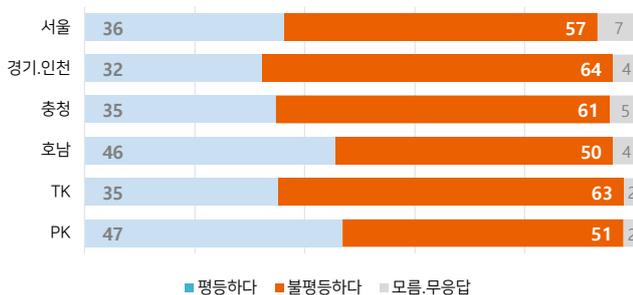
우리나라 남녀 평등 현황 평가 : 국민전체,성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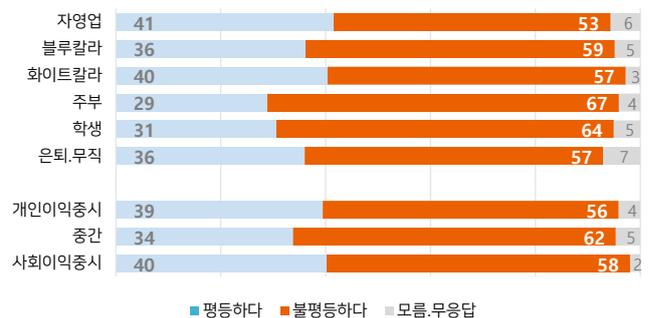
우리나라 남녀 평등 현황 평가 : 성/연령별 (2022.02.13조사,단위:%)



우리나라 남녀 평등 현황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우리나라 남녀 평등 현황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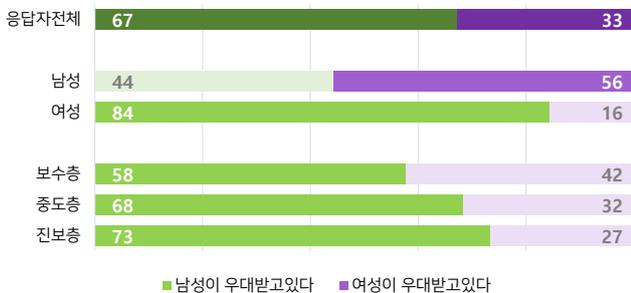
Kstat Point

- ☑ 몇 년 전부터 남녀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 역시 우리사회를 ‘남녀 불평등 사회’로 생각하고 있음
 - : 남녀 불평등 이슈는 주로 20대 남녀의 중심 이슈였지만, 이제는 모든 연령으로까지 확산된 양상임
- ☑ 또한 ‘남녀 불평등 사회’를 바라보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커, 앞으로도 남녀 불평등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남성층 중 50%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47%는 평등하다고 생각함
 - : 이에 비해 여성층은 68%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평등하다는 의견은 27%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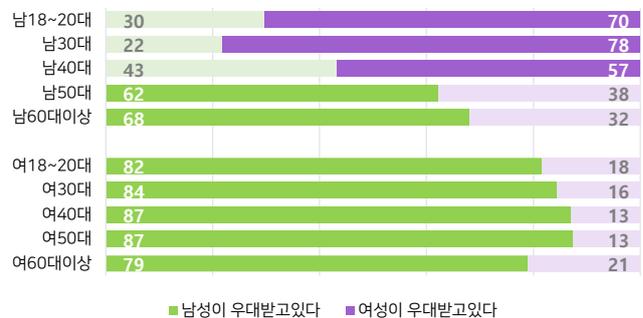
□ 우대받는 성, '남성' 67% vs '여성' 33%

- 앞서 질문에서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국민 중 다수는 '남성이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함
 - '불평등하다'는 응답자는 모두 607명이며, 계층 분석시 샘플 수 46명 미만은 제외함
- '남성이 우대받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여성이 우대받고 있다'는 의견(33%)보다 높게 나타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남성이 우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성 △여자 2050세대 △주부 등임
- '여성이 우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성 △남자 2040세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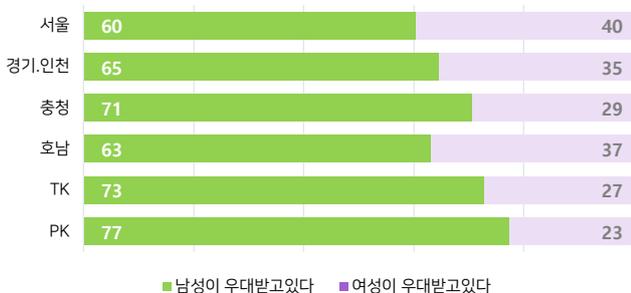
우대받는 성 인식 : 응답자 전체(n=607),성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우대받는 성 인식 : 성/연령별(n=607) (단위:%)



우대받는 성 인식 : 지역별(n=607)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우대받는 성 인식 : 직업별,이직중시별(n=607)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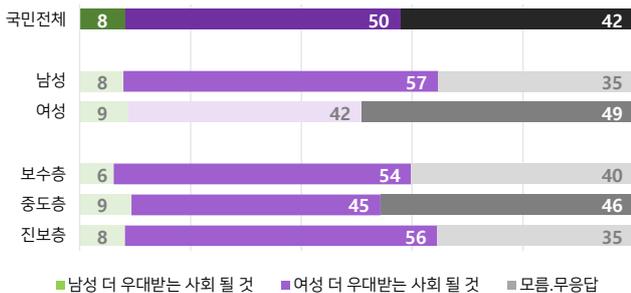
- ☑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 사회'라고 생각하면서도, 불평등 내용에 대한 남녀 간 생각 차이가 매우 다름
- ☑ 주목되는 지점은 남성 내 세대 간의 인식차이로, 남자 2040세대와 남자 5060세대의 생각이 다름
 - : 남자 2040세대는 '여성이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남자 5060세대는 '남성이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함
 - : 이러한 인식차이는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정책 변화에 대한 경험 차이 때문으로 보임
 - : 즉, 남자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가 '남성 우위'에서 '남녀 평등' 사회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는 조사대상국 156개국 중에 102위로 하위권에 있음(2021년 보고서)
- ☑ 『세계 성 격차 보고서』가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해도 남자 2040세대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 어떤 지점에서 남자 2040세대들이 불만을 갖는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양성 평등'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녀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큼
- ☑ 지금까지의 '양성 평등' 정책이 다소 당위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다각적인 현실분석에 기반한 섬세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임

□ 30년 후, '여성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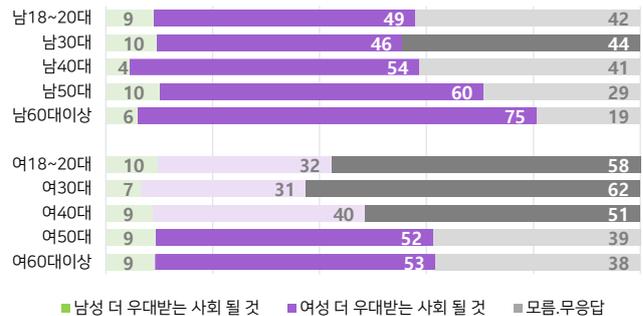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으로 생각함
 - "지금과 비교할 때,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모름.무응답' 42%, '남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8% 순으로 조사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성 △남자 5060세대 △PK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한편, '모름.무응답' 의견이 매우 많으며, '모름.무응답'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성 △중도층 △남자 30대 △여자 2040세대 △TK △블루칼라, 학생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향후 30년 후 전망 : 국민전체,성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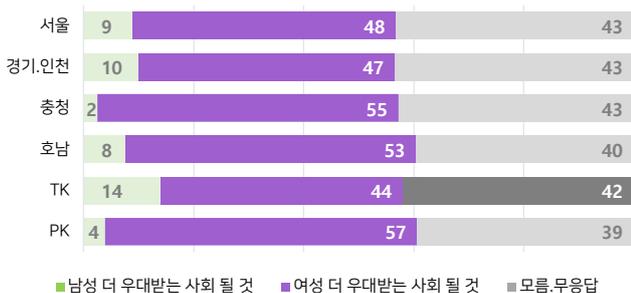


향후 30년 후 전망 : 성/연령별 (2022.02.1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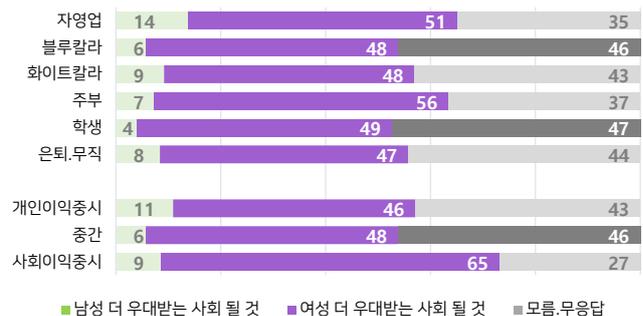


향후 30년 후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



향후 30년 후 전망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Kstat Point

- ☑ 남녀 모두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함
 - : 지금보다 '남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 될 것'이라는 의견은 매우 적음
- ☑ 하지만 '모름.무응답' 의견이 매우 많으며, 이는 지금과 30년 후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힘
 - : 이러한 의견은 주로 여자 2040세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30년 후에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유보적임
 - : 즉, 여자 2040세대는 남성이 우대받는 지금의 사회가 30년 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앞서 남자 2040세대가 '남녀 평등'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불만을 가졌듯이, 여자 2040세대 역시 지금의 '남녀 평등'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별 '자기 인식' 현황

□ 지금의 성으로 태어난 것, 남성 만족도 소폭 높아

- 한국인들은 지금의 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다소 '다행인 편'이라고 생각함
 - "나는 [남자 /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1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국민 전체적으로 3.09점을 기록함
 - 설문조사시 남성은 [남자]로 명기된 설문으로, 여성은 [여자]로 명기된 설문으로 다르게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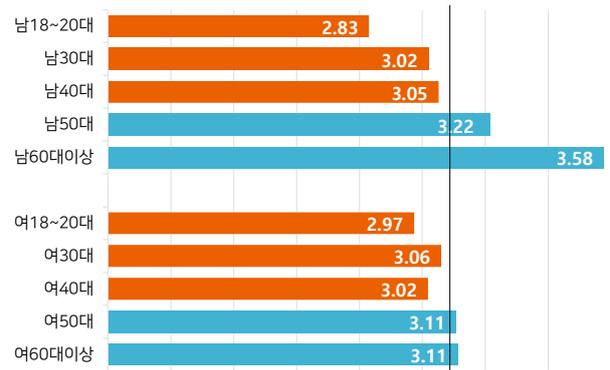


- 성별 인식을 보면, 남성 3.13점, 여성 3.06점으로 남성이 조금 더 '다행인 편'이라고 생각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3.09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연령별로는 204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낮고, 5060세대는 국민전체 보다 높음
- 또,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40세대와 여자 2040세대는 국민전체 보다 낮고, 남자 5060세대와 여자 506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나는 [지금의 성]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성별,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나는 [지금의 성]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성/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남녀 평등과 관련된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지금의 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생각 차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
 - : 우리사회의 남녀 평등(반대 측면에서의 남녀 불평등) 현실에 대해 각자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는 남녀 2040세대는 '지금의 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5060세대 보다 만족도가 낮음
 - : 특히 남녀 18~20대는 모두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남자 2.83점, 여자 2.97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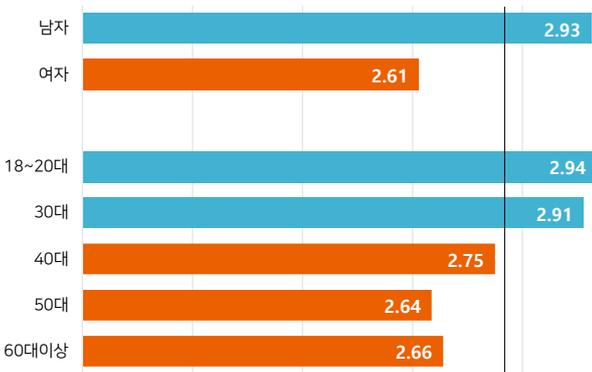
□ 우리 성 중시 이익, 여성이 더 '자기이익 중시'

- 자신이 속한 성이 '자기이익'과 '사회이익' 중에서 어떤 이익을 중시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 전체적으로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편'(2.77점)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자 /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기 이익을 중시한다' 1점에서 '매우 사회이익을 중시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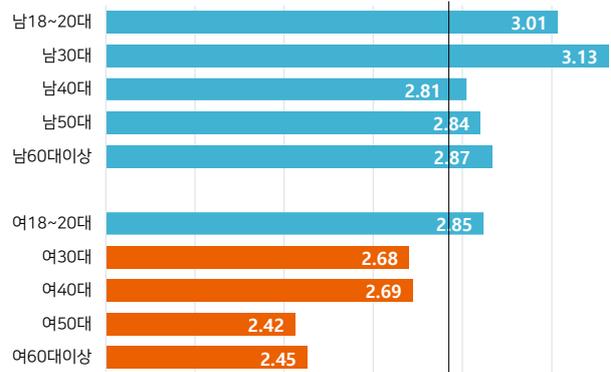


- 성별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 2.93점, 여성 2.61점으로 여성이 조금 더 '자기이익'을 중시한다고 생각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2.77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이익' 중시 경향을 보임
 - 18~2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2.94점),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64점, 2.66점을 기록함
- 또, 성/연령별로는 여자 3060세대에서 '자기 이익' 중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성은 사회이익을 중시한다" 성별,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우리 성은 사회이익을 중시한다" 성/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남녀 모두 '사회이익' 보다 '자기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이익' 중시 생각을 보인 성/연령대는 남자 2030세대에 그치고, 이 역시 점수가 높지 않음
- ☑ 또한 '자기이익' 중시 생각은 남성층보다 여성층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됨
 - : 특히 여자 5060세대는 각각 2.42점, 2.45점으로 '자기이익' 중시 경향을 뚜렷하게 내보임
 - : 여자 18~20대는 상대적으로 다른 여자 세대에 비해 '자기이익' 중시 경향이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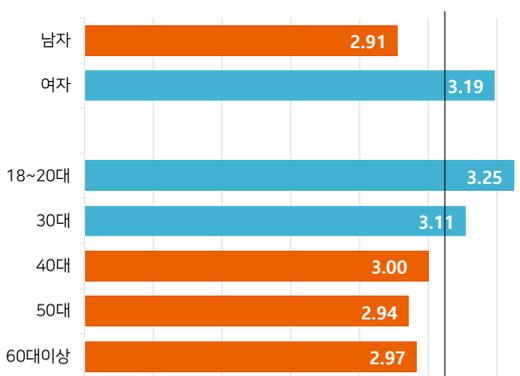
□ 우리 성 대화 방법, 남성과 여성 달라

- 자신의 성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태도에 대해, 국민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으로 인식함(3.05점)
 - “전반적으로 [남자 / 여자]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매우 자기 말만 한다’ 1점에서 ‘매우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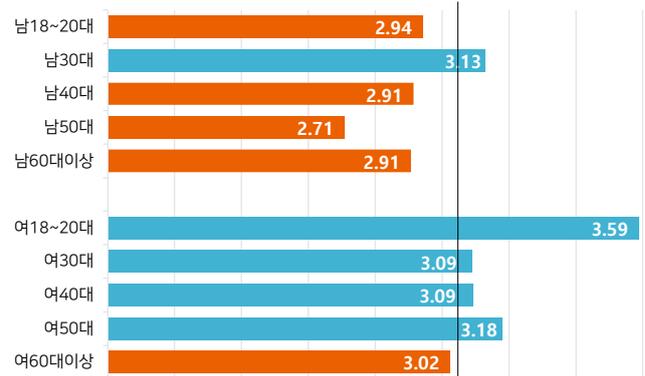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자기 말만 하는 편’(2.91점)이라 인식하고, 여성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3.19점)으로 인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3.05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말만 하는 편’으로 생각함
 - 40대를 기준으로(3.00점) 2030세대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이라 응답하고, 5060세대는 ‘자기 말만 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또한, 성/연령별로는 거의 모든 여성 세대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남성은 다르게 응답함
 - 여자 18~20대가 가장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3.59점)으로 나타났고, 남자 50대가 가장 ‘자기 말만 하는 편’(2.71점)으로 나타남

“우리 성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성별,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우리 성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성/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대화를 할 때 주로 남자들은 자기 말을 하고, 여자들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고 인식함
- ☑ 이러한 경향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 남자 18~20대는 ‘자기 말을 하는 편’(2.94점)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여자 18~20대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3.59점)이라고 응답함
 - : 30대에서만 근소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이라고 응답함(남자 3.13점, 여자 3.09점)

□ 대한민국에서 위치, 남성 '주도' vs 여성 '소외'

-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속한 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 전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편'과 '주도하는 편'의 중간인 '보통 이다' 수준으로 인식함(2.99점)
 - "대한민국에서 [남자 / 여자]들의 위치는..." '매우 소외되어 있다' 1점에서 '매우 주도하고 있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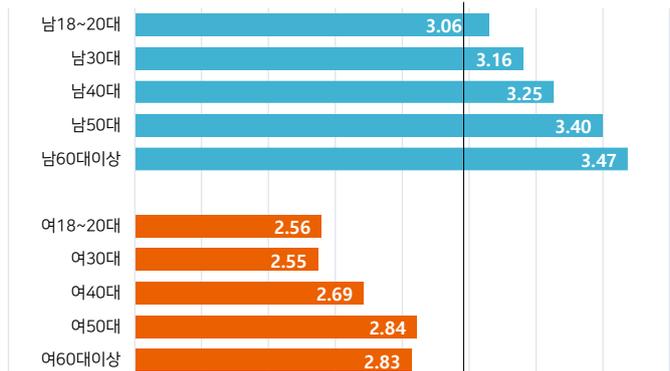


- 성별 인식을 보면, 남성은 '주도하는 편'(3.27점)이라 생각하고,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편'(2.70점)이라고 생각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2.99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도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2030세대는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5060세대는 '주도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성/연령별로는 모든 남성 세대가 '주도하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데 비해 모든 여성 세대는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인식함

"우리 성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우리 성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 성/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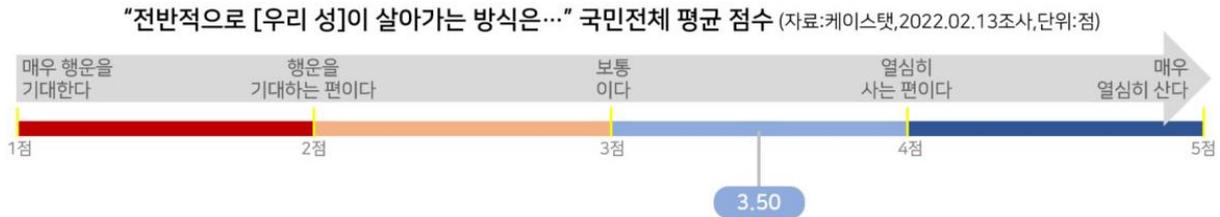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남성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함
- ☑ 같은 세대 안에서도 남녀 간 인식 차이는 큰 편임
 - : 남자 18~20대는 3.06점인데 비해 여자 18~20대는 2.56점에 그치는 등 모든 세대에서 남녀 간 차이가 상당함
- ☑ 이 항목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는 남녀 간 불평등이 존재하며, 남녀 모두 스스로 이러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음

□ 삶의 방식, 남성이 조금 더 '열심히 산다' 생각

- 자신의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할 때, 국민 전체적으로 '행운을 기대' 하기보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평점 3.50점)
 - "전반적으로 [남자 / 여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행운을 기대한다' 1점에서 '매우 열심히 산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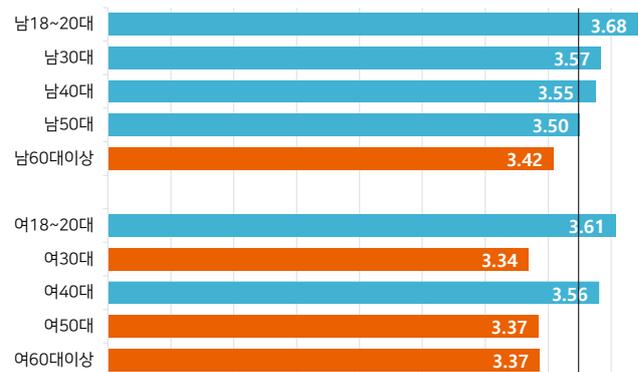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열심히 산다'는 인식이 소폭 높음(남성 3.55점, 여성 3.45점)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3.50점)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열심히 사는 편'이라고 응답이 소폭 높음
 - 18~20대가 가장 '열심히 사는 편'이라고 응답함(3.65점)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소폭 더 '열심히 사는 편'이라는 응답함
 - 남자 18~20대가 가장 '열심히 사는 편'이라고 인식함(3.68점)

"우리 성은 열심히 산다" 성별,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우리 성은 열심히 산다" 성/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2.02.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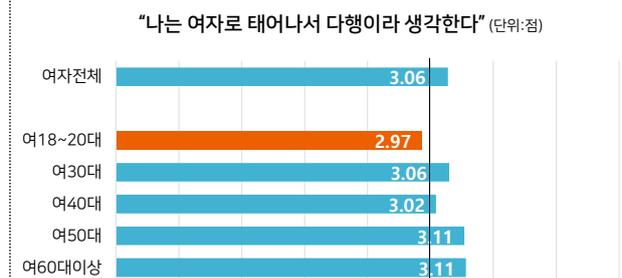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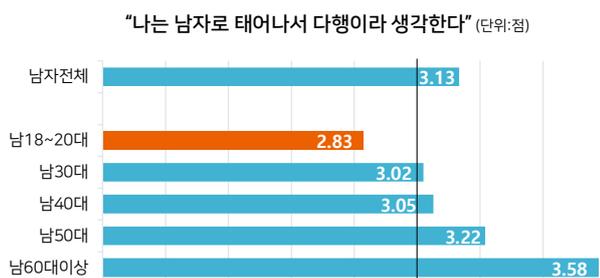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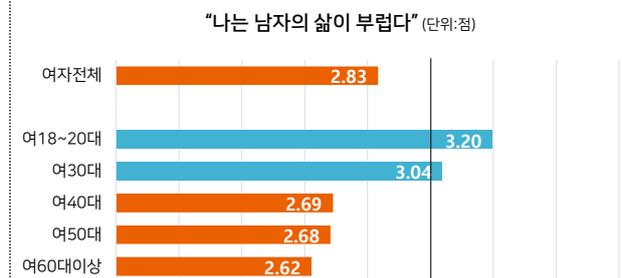
Kstat Point

- ☑ 남녀 모두 자신의 성이 열심히 사는 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은 남성이 소폭 더 강함
- ☑ 특히 18~20대는 남녀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임
 - : 남자 18~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남성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여자 18~20대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여성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함
 - : 이러한 흐름은 앞서의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함
- ☑ 이는 남녀 18~20대에서 남녀 평등 또는 남녀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가장 거센 결과로 보임
 - : 즉, 남녀 불평등 논란 중에 자신이 속한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상대 성에 대한 인식' 현황

□ 남성, 여성의 삶 '부럽다' 생각

- 상대 성의 삶을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을 질문한 결과 남성은 여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여성은 남자의 삶을 불쌍하게 생각함
 - “[여자 / 남자의] 삶을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은...” ‘매우 불쌍하다’ 1점에서 ‘매우 부럽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설문조사시 남성은 [여자]를 평가하고, 여성은 [남자]를 평가하도록 별도 진행함
- 성별 인식을 보면, 남성은 여자의 삶이 ‘부러운 편’(3.22점)인데 비해, 여성은 남자의 삶이 ‘불쌍한 편’(2.83점)이라고 응답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 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층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 2030세대는 남자의 삶이 ‘부러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여자 4060세대는 ‘불쌍하다’고 인식함
 - 남성층은 모든 세대에 걸쳐 여자의 삶이 ‘부러운 편’이라고 응답하는 가운데 특히 남자 18~20대의 ‘부러운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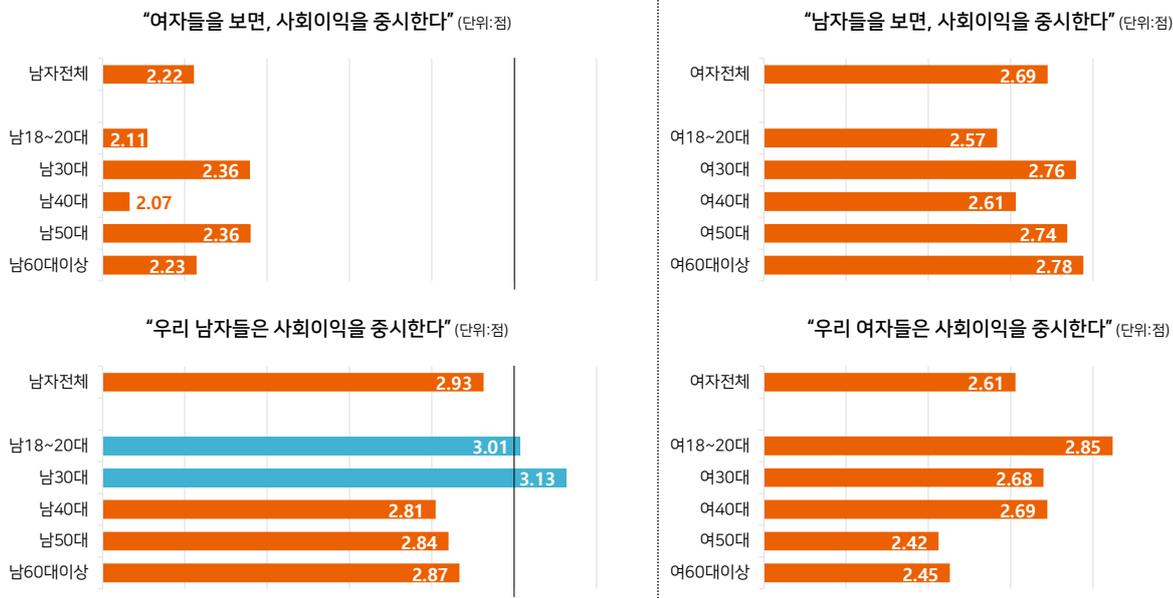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여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여성들은 대체로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함
 - : 남성의 태도는 모순적인데, 이는 남성들이 남자로서의 삶에 다소 힘겨워하는 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하지만 남녀 18~20대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있음
 - : 즉, 남성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로 태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18~20대는 여자의 삶을 매우 부러워함
 - : 여자 18~20대 역시 여자로 태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음
 - : 한편, 여자 30대는 여자로 태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자의 삶을 부러워함

□ 이익중시, 남성의 여성 보는 인식 차 커

- 상대 성이 중시하는 이익에 대해 남녀 모두 '자기이익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 "전반적으로 [여자 /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기이익을 중시한다' 1점에서 '매우 사회이익을 중시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성별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음
- 남성은 여자들이 '자기이익 중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2.22점),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자기이익 중시' 경향을 약하게 생각함(2.69점)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 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세대를 떠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인식을 나타냄



Kstat Point

- ☑ 자신이 속한 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대 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함
 - : 이익중시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성들은 자기인식에 비해 여성들이 많은 차이로 '자기이익'을 중시한다고 생각함
 - : 특히 남자 18~20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남성은 사회이익을 중시하고(3.01점), 여성은 자기이익을 중시한다고 생각(2.11점)이 매우 뚜렷하게 대별됨
- ☑ 이에 비해 여성들은 자기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성들을 바라보고 있음
 - : 여성들 자신도 자기이익을 중시하고, 남성들도 비슷하게 자기이익을 중시한다고 바라봄
 - : 다만, 여자 18~20대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여성이 자기이익을 중시하지만(2.85점), 남성은 더 많이 자기이익을 중시한다고 생각함(2.57점)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 18~20대가 여타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의 남녀 불평등 논란의 최전선에 이들 세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남녀 모두 상대 성은 '자기 말만 한다' 생각

- 상대 성의 대화 태도에 대해 남녀 모두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하고, 차이도 거의 없음
 - "전반적으로 [여자 / 남자]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매우 자기 말만 한다' 1점에서 '매우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 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에서는 남자 18~20대가 여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여성 중에서는 여자 60대 이상이 남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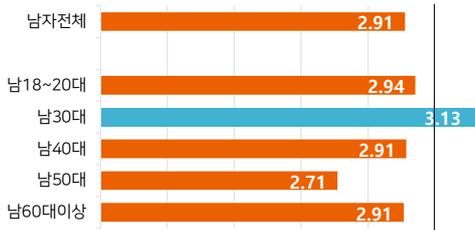
"여자들을 보면,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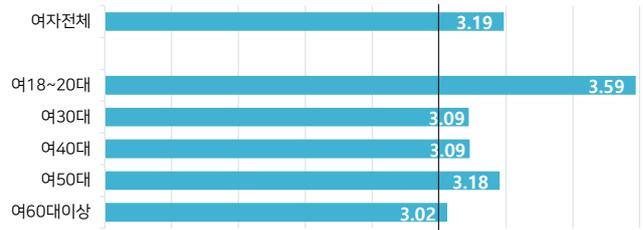
"남자들을 보면,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단위:점)



"우리 남자들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단위:점)



"우리 여자들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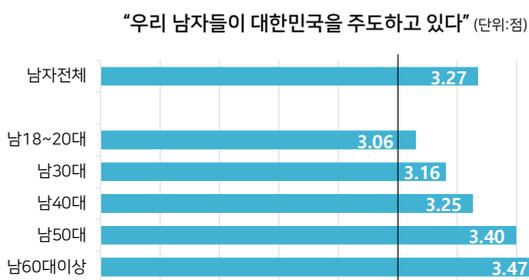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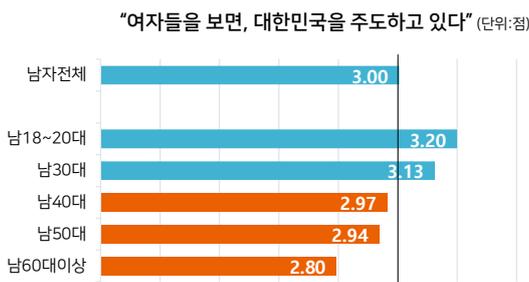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화 방식에 대한 자기 성에 대한 인식과 상대 성에 대한 인식은 남녀 간에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남
 - : 남성은 자신이 속한 성에 대해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하고(남자 30대는 예외), 여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함
 - : 이에 비해 여성은 자신이 속한 성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함
- ☑ 여성층의 자기 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남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하지만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은 남성들에게도 여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다는 지적임
 - : '남자는 자기 말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됨에 따라 남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남성들 역시 '여자는 자기 말만 한다'고 인식토록 한다는 것임
- ☑ 특히 여자 18~20대의 자기인식과 남성에 대한 극명한 인식 차이는 남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여자 18~20대는 여성에 대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편'(3.59점으로 가장 높음)이라 생각하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자기 말만 하는 편'(2.66점으로 가장 낮음)이라고 생각함
 - : 다만, 여자 18~20대의 이러한 인식 차이 역시 남녀 불평등 이슈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세대적 특징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함

□ 여성, 남자들이 대한민국 주도한다고 인식

- 상대 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남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여성층의 생각이 두드러짐
 - “대한민국에서 [여자 / 남자]의 위치는...” ‘매우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어 있다’ 1점에서 ‘매우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성별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대한민국에서의 여자들 위치는 ‘보통이다’(3.00점)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여성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편’(3.71점)이라는 생각이 뚜렷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 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층 내에서의 세대 간 인식차이가 존재함
 - 남자 2030세대는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편’(각각 3.20점, 3.13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4060세대는 여자들이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함
- 이에 비해 여성층 내에서의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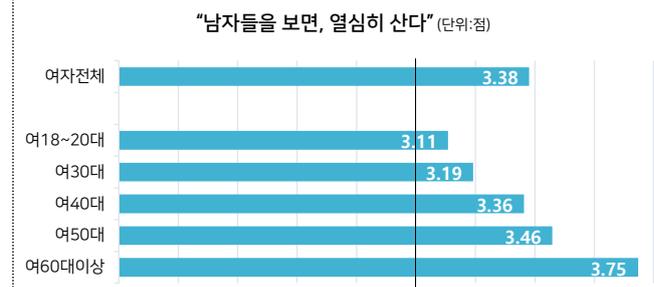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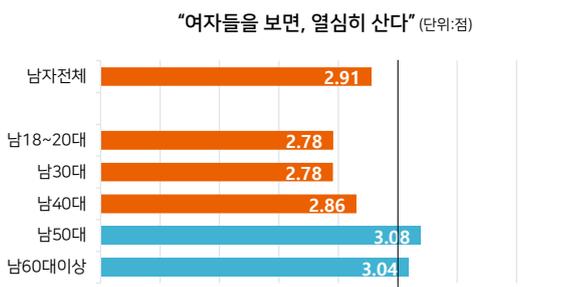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성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함
: 남자 18~20대만 자기인식(3.06점) 보다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한다는 인식이 소폭 높음(3.20점)
- ☑ 여성들은 스스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남자들이 주도한다는 생각이 강함
: 특히 여자 18~20대의 소외의식이 강하고, 남자들 주도에 대한 인식 역시 강함
- ☑ 우리 사회의 객관적 현실을 떠나 이러한 남녀 간 인식 차이는 그 자체로 여성이 사회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로 평가 가능함

□ 남성, 여자들 사는 방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

- 상대 성이 사는 방식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여성은 남성에 대해 긍정적임
 - “전반적으로 [여자 /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행운을 기대한다’ 1점에서 ‘매우 열심히 산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성별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여자들이 ‘행운을 기대하는 편’(2.91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여성은 남자들이 ‘열심히 사는 편’(3.38점)이라고 생각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 선이고, 이보다 낮으면 주황색, 높으면 푸른색으로 표기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층 내에서의 세대 간 인식차이가 나타남
 - 남자 2040세대는 여자들이 ‘행운을 기대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5060세대는 여자들이 ‘열심히 사는 편’이라고 생각함
- 여성층 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 여성층 모두에서 남자의 삶은 ‘열심히 사는 편’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여자 6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75점), 여자 18~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김(3.11점)



Kstat Point

- ☑ 남성들은 스스로에 대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 남자 18~20대가 이러한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3.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2.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매김
- ☑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나 남성에 대해 모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함
 - : 여자 18~20대의 경우 스스로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인 3.61점을 주고, 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11점을 주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산다’는 인식을 나타냄
- ☑ 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대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남성의 인식 차이가 뚜렷한 모습임
 - : 이에 비해 여성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
- ☑ 남성들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남녀 불평등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비판적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6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6호는 『한국민 '성 역할 의식'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3월 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